

군산 페이퍼코리아, 74년 조촌동 시대 마감

생산라인 가동 중단 국가산업단지 이전

군산 페이퍼코리아가 74년간의 조촌동 시대를 마감하고 국가산업단지 로 공장을 이전했다. 페이퍼코리아는 6일 오전 8시 수출용 신문용지와 포장용지, 일반용지 540톤 생산을 마지막으로 조촌동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지난 70여년간 쉬지 않던 생산라인이 멈추자 페이퍼코리아 임직원들은 그동안의 땅과 정성이 배어있는 공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조촌동공장과 작별을 고했다. 페이퍼코리아는 향후 일부 필수 요원들만 남겨 둔 채 모든 인원을 군산 2국가산업단지 9만5868㎡의 부지에 건설 중인 새로운 공장에 투입한다. 이어 공장 건설 마무리와 생산라인 적응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군산 항토기업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조촌동공장은 이날 가동 중단과 함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 1943년 2월 복선제지로 착공한 조촌동공장은 1954년 고려제지, 1973년 세대제지, 1985년 세풍 2003년 페이퍼코리아로 이어지며 국내 제지업계를 선도해 왔다. 고려제지 시절에는 국내 최고 품질의 신문용지 '군산쟁지'를 생산하며 1976년 신문용지 1호로 KS마크를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 최초 제지공장'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제지 사관학교'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당초 외곽지역이었던 조촌동 공장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도심 팽창으로 도시발전의 연속성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되는 등 공장이

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11년 군산시와 공장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년여의 논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2015년부터 공장이전에 착수했다. 이전비용은 기존 56만837㎡(16만평)의 조촌동공장 부지를 주거와 쇼핑, 교육, 문화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복합도시 '디오션시티'로 개발해 증단기로 했다.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개발 사업은 현재 1단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단계는 이번 달 '편한세상 디오션시티 2차' 423세대 분양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된다. 이번에 분양되는 '편한세상 디오션시티 2차' 아파트는 1단계 성공 개발로 가시화 된 디오션시티의 미래 가치를 함께 인근 군봉공원 등 우수 녹지조망과 친환경적 요소가 장점으로 꼽힌다. 남향 위주의 채광이 극대화 된 4Bay 설계와 획기적인 층간소음 저감 설계 등은 2017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아파트 부분 대상을 수상한 '편한세상'의 브랜드 가치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내년 4월 롯데아울렛 개업에 이어 입주 전 디오션시티 조성이 완료돼 입주와 동시에 복합도시의 혜택을 오롯이 누릴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74년 동안 군산의 지역경제사와 함께 해 왔던 조촌동 시대를 마감하고 국가산업단지에서 새로운 100년을 맞게 됐다"며 "디오션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동군산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공장이전사업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의 전통시장들, '특색있는 시장' 조성

신영시장 · 명신시장 등 경영개선

대형마트의 진출 이후 침체되어 있던 군산의 전통시장들이 다시 한 번 화려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시 신영동에 위치한 신영시장은 상품 포장재 개발을 통해 상품성과 위생성을 강화하고 참깨된 시장골목에서는 주말장터를 열어 기존 상인의 상품을 판매하며 매출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 개최된 '별미찬 박대축제'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판매부스를 운영해 판매수익을 증대시켰으며, 저저분한 시장 입구정비, 상인 얼굴을 새긴 돌출형 LED 간판 및 조명 설치, 노후화된 매대 교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현재는 인터넷방송국, 고객센터 조성, 스마트 디지털홍보(HD 모니터, 키오스크, 블로그)를 통해 잠재고객을 확보하고 시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산=김판근기자

고 있으며, 공동작업장 및 건조장을 조성하여 신뢰성 있는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명신시장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근대역사 체험 특화시장 조성 ▲상인도슨트 교육을 통한 근대사 해설사 양성 ▲교방 음식 등 근대사 시대별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야시장 운영 ▲진열환경 및 유통환경 개선 ▲일제강점기 우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고객 센터 조성 계획을 확정했으며, 현재는 기존상인 매대 교체 및 야시장 구간 간판정비 및 어닝(차일드)교체 작업을 실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관광형시장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상인들에게 판매방식과 유통방식에 변화를 주어 매출과 연계될 수 있음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사업"이라며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신비의 섬 어청도, 관광객 발길 사로잡다

'여객운임비 할인사업' 실시 등 경제 활성화 위한 시책사업 추진

군산시가 도내 최원(遠)거리에 위치한 도서인 어청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섬 주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어청도는 지난 2010년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명품섬 Best 10에 선정된 섬으로 1912년에 축조된 어청도 등대는 등록문화재 제378호에 지정되어 있으며, 어청도항 내에 설치된 해안테크와 섬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팔각정 등은 어청도의 매력을 한껏 높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어청도는 어획량의 감소, 주민이탈 등 침체된 경제로 인해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어청도가 갖고 있는 어촌지역 고유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관광소득의 기반 마련에 나섰다. 먼저 시는 군산시민에 한하여 어청도를 방문하는 여객선 운임비 할인사업(1인 기준 왕복 여객비 46,000원에서 23,000원 할인)을 시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객운임비 할인사업'의 실시로 최근 어청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어청도는 지난 2010년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명품섬 Best 10에 선정된 섬으로 어청도항 내에 설치된 해안테크와 섬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팔각정 등은 어청도의 매력을 한껏 높이고 있다.

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 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에 시에서는 내년에도 시법사업의 연중 확대 추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청도는 해양수산부(전북도)가 주관하는 '2018 어촌관광 이야기길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어청도에 다양한 이야기와 색깔을 입히는 관광기반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에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천혜의 환경을 지닌 어청소

만과 어청도등대, 전철장군 전설, 봉수대 등 어청도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기존의 등산로 정비와 함께 테마가 있는 이야기길을 조성하는 등 어촌마을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남철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어청도로 주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이번 어청도 활성화 대책을 통해 어청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 섬이 활력을 되찾고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기자

원광대 동물자원개발연구센터 동물매개교육 심포지엄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동물자원개발연구센터는 동물매개교육과 인성 향상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지난 4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 대학 강당에서 개최했다. 동물자원개발연구센터는 농촌진흥청 TOP5 융복합프로젝트인 '아동 인성 향상을 위한 동물매개교육 모델 개발' 주관책임 기관으로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얻었으며, 이번 심포지엄은 동물매개교육에 관한 연구 성과 확산과 향후 연구 방향 정립을 위하여 기획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동물매개교육의 국내외 현황(김옥진 원광대 교수) ▲아동 인성의 형성과정과 변화 요인(김철권 한국인성교육연구 대표) ▲아동 인성을 위한 동물매개 기법과 적용(이시중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교수) ▲교육 현장에서의 동물매개교육 적용과 비전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옥진 교수는 "아동에게 반려동물이 주는 교육적 효과는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자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위한 school dog program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동물자원개발연구센터에서는 국내 동물매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과학적 효과 검증 등을 수행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시,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국회단계 총력

군산시가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6일 국회를 방문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과 예정 위 위원들을 만나 2018년 국가예산사업에 대하여 증액과 삭감방지를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는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 심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예결위에서도 11월 6일, 1일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예산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문 시장은 백재현 예결위원장을 만나 군산 근대해면역사관 건립과 국도4호선 잔여구간(장지도~관리도) 개설 사업비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며, 안호영 의원 등 예결위 위원들에게 국

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조성 사업을 비롯한 군산관련 국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협조를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관영 의원과 국가예산 증액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새만금 등 주요사업별 증액금액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3당 체제가 이루어진 전북지역 의원들과 공조, 당 차원의 예산증액을 요청하기로 했다. 문동신 시장은 "정부의 SO예산 축소방향을 새만금사업에 대한 예산과소반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지막 국회 심의단계에 전북도 및 지역정당권과의 공조를 비롯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시, 국가예산 확보 위해 지역정치권과 공조

익산시가 시 주요사업의 내년 국가예산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을 각각 면담하고 시 주요 현안사업의 2018년 국가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 시장은 새만금 수질과 악취 개선을 위한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389억),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을 위한 △세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146억),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과 공정개선을 위한 △하수처리기 감량화 사업(45억) 등의 내년 국가예산이 국회단계에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오는 토요일에 개최되는 이리역 폭발사고 40주기 추모행사와 익산시 최대 현안인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국가예산이 국회단계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익산=정왕원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